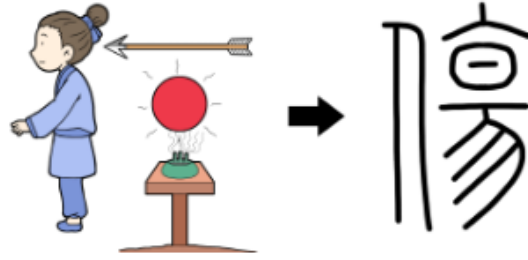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傷

다칠 상

傷자는 '상처'나 '다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傷자는 人(사람 인)자와 昜(별 양)자, 矢(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傷자의 상단에 있는 冫 것은 화살을 뜻하는 矢자가 변형된 것이다. 昜(별 양)자는 태양이 제단 위를 비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별'이나 '양지'라는 뜻이 있다. 傷자는 본래 화살에 맞아 다친 사람을 뜻했던 글자였다. 화살을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되면 몸에 열이 나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傷자는 화살과 昜자를 결합해 상처로 인해 몸에 열이 나고 있음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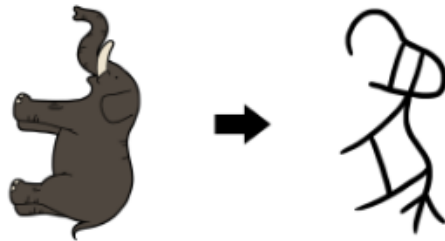
傷

소전

傷

해서

상형문자①



象

코끼리 상

象자는 '코끼리'를 그린 글자이다. 象자는 단지 자형에 豕(돼지 시)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豕자 부수에 들어가 있지만 '돼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象자는 코가 긴 코끼리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는 황하 유역까지 코끼리가 서식했었다. 그래서 象자는 고대 중국인들이 직접 코끼리를 보고 만든 글자이다. 중국의 많은 역사기록에도 코끼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코끼리를 본뜬 여러 유물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만을 봐도 코끼리는 고대 중국인들과 매우 가까운 동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殷)나라 이후 기후변화와 함께 농경문화가 확산하면서 코끼리의 개체 수는 급감하였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와 맞닿아 있는 일부 경계지역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코끼리가 일찍 사라져서인지 象자는 '코끼리'라는 뜻 외에도 '모습'이나 '형상'이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象

갑골문

象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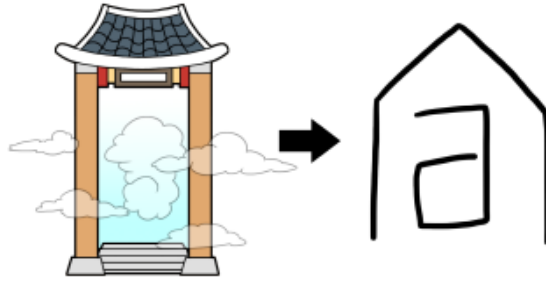
象

소전

象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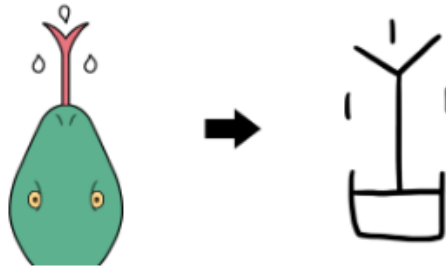
宣

베풀 선

宣자는 '베풀다'나 '널리 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宣자는 宀(집 면)자와 𠂔(베풀 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을 그린 것으로 '뻗치다'나 '베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宣자는 해서체에서 완성된 것으로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宣자는 천자(天子)가 거주하는 궁실(宮室)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宀자에 구름이 드리워진 𠂔 모습으로 그려졌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궁전을 신비롭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宣자는 '천자의 궁실'을 뜻했었지만, 후에 천자가 덕과 온정을 베푼다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베풀다'나 '널리 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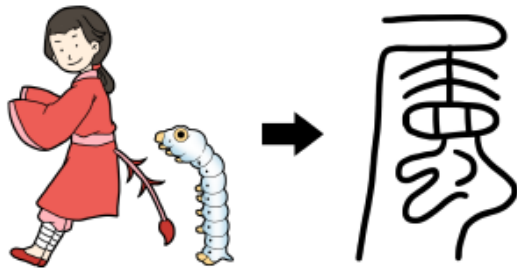
舌

혀 설

舌자는 '혀'나 '말'을 뜻하는 글자이다. 舌자는 동물의 혀바닥을 본떠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舌자를 보면 길게 뻗은 혀바닥 주위로 침이 튼 舌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뱀이나 도마뱀의 혀바닥을 그린 것이다. 사람보다는 파충류 혀가 인상이 강하기에 동물의 혀를 그려 '혀바닥'을 표현한 것이다. 舌자는 본래 '혀바닥'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지만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말'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는 편이다. 게다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도 주로 모양자로만 활용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屬

붙일 속

屬자는 '무리'나 '거느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屬자는 尾(꼬리 미)자와 蜀(애벌레 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蜀자는 눈이 큰 애벌레를 그린 것이다. 짐승은 벌레를 쫓기 위해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대지만 그럼에도 벌레들은 끊임없이 달려든다. 屬자는 이렇게 벌레가 짐승의 꼬리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응용한 글자로 '무리'나 '거느리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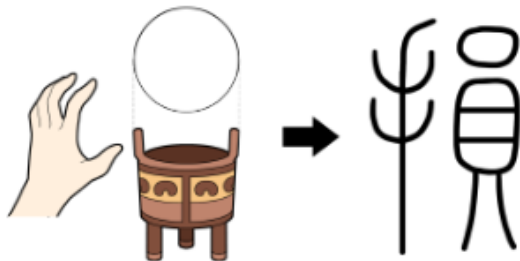
屬

소전

屬

해서

회의문자 ①



損

덜 손:

損자는 '덜다'나 '줄이다', '감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損자는 手(손 수)자와 員(수효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員자는 '인원'이나 '수효'라는 뜻을 갖고 있다. 損자는 이렇게 '수효'를 뜻하는 員자에 手자를 결합한 것으로 손으로 인원을 떨어낸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損자는 '잃다'나 '손해를 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損

소전

損

해서

형성문자①



頌

기릴/칭
송할 송:

頌자는 '칭송하다'나 '기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頌자는 公(공변될 공)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公자는 물건을 반으로 나눈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공→송'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頌자는 본래 사람의 '얼굴'이나 '용모'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頌자에 아직도 '얼굴'이나 '용모'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頌자는 사람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칭송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頌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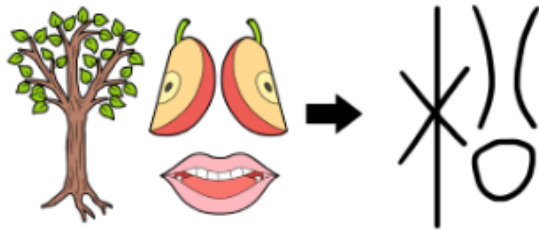
頌

소전

頌

해서

형성문자①



松

소나무
송

松자는 '소나무'나 '느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松자는 木(나무 목)자와 公(공평할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公자는 칼로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공→송'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소나무에서 나는 솔잎 향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곤 한다. 그래서인지 松자에는 '여유가 있다'나 '긴장이 풀리다'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松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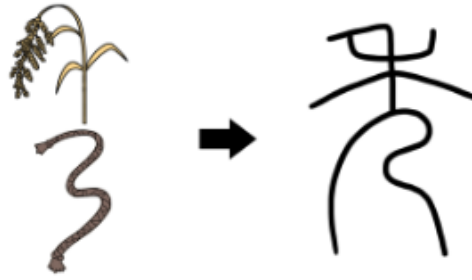
松

소전

松

해서

회의문자①



秀

빼어날
수

秀자는 ‘빼어나다’나 ‘(높이)솟아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秀자는 禾(벼 화)자와 乃(이에 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乃자는 줄이 굽어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秀자의 소전을 보면 禾자 아래로 乃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벼가 잘 자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秀자는 본래 ‘솟아나다’에서 ‘성장하다’나 ‘(꽃이)피다’, ‘무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에 빗대어 ‘빼어나다’나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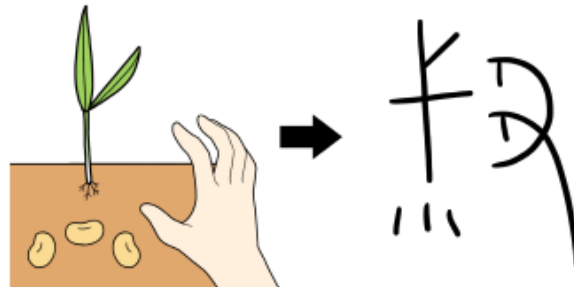
秀

소전

秀

해서

회의문자①



叔

아재비
숙

叔자는 ‘아저씨’나 ‘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叔자는 콩을 줍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금문에 나온 叔자를 보면 새싹 아래로 떨어져 있는 콩을 줍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叔자의 본래 의미는 ‘콩’이나 ‘줍다’였다. 콩은 하나의 껍지에 여러 개의 알이 들어있다. 그래서 叔자는 콩각지를 한 가족에 비유하면서 ‘아저씨’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한 집안의 형제들을 하나의 콩각지 안에 있는 콩으로 비유한 것이다.

叔

금문

叔

소전

叔

해서